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4. 2. / (총 7매)			
중양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이 선 영 문 달 해	전 화	044-202-3575 044-202-380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양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유 보 영 박 지 혜	전 화	044-202-3713 044-202-371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경기도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 ▲주요국 코로나19 대응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향후 조치 사항,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고비를 넘어가자고 당부하였다.
- 또한 온라인 개학은 초유의 일로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조하였다.

## 1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 (경기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기도의 전체 확진자 중 약 50%는 교회,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이다.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인 의정부성모병원의 환자 발생 현황과 중앙·경기도 즉각대응팀 파견을 통한 역학조사 진행상황, 입원환자 및 전 직원 전수검사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보고하였다.
- 경기도는 향후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발열 체크를 매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시설 담당자 지정을 통해 일일 현황점검을 강화하며,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2 이탈리아 교민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 상황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임시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그 직계가족 총 309명은 어제(4월 1일) 1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를 분류하고 기내 좌석을 분리하였으며, 입국 후 인천 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하였다.

\*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 불가 조치

- 입국 검역을 통해 1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인천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한 결과, 1명이 확진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음성 판정받은 1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한다.
- 그 외 298명은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평창 더화이트호텔)로 이동하여 오늘 오전부터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인 확인된 사람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며, 그 외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입국 재외국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의 운영,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총 8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 \*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격리 기간 동안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 및 퇴소 전 진단검사 실시
- 오늘 새벽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에서 총 205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을 태우고 출발한 2차 임시항공편은 오늘 16시 2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입국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1차 임시항공편과 동일한 체계로 검역, 이송 및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다.
- 한편, 3월 19일에 귀국하여 시설 격리 중인 이란 재외국민 79명은 어제 실시한 2차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어 내일 오전 임시생활시설(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연수센터)에서 퇴소한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교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최근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가방역 관리에 있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물자가 아니라 국민 - 의료인 - 정부 간의 신뢰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유념하여 보도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제1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3.31, 3.27)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발의 감염병 유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집회 확산은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돌출 양상, 세력 집중, 수월의 지역적 차이, 의료 격차 등이 있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가-간호사의 헌신도 노력이 감염을 막았다. 한편의 코로나19 저점률은 17%로 의료법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

[illegible]

마음을 더욱 두껍게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보호복 등 보호 물품이 부족하다는 의료계급의 호소에 “생각하고 쓰려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시각 일부의 사는 보호복이 없다’ 대신 수술 가운을 입기도 했다. 정부는 또 의료계급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 해산 산포기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폐렴으로 숨진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한 차례

[illegible]

“수당 바꾸고 단기 근로자 취업” 의료진 확대 한 곳만 아니다

정부는, 대우소독을 시작해 1교차 방역 방역  
시공을 종료 후 방역을 마치고 방역  
공급을 종료, 방역을 마치고 방역을  
대우시 "정부는 방역을 마치고 방역"  
정부는 "방역"을 마치고 방역을 마치고

[illegible]

“생업 뒤로하고 대구 왔는데...” 자원 의료진 확대하는 정부

[illegible][illegible]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닌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될  
임시선별치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끝났"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그리고 '해이'를 가리키며, 의사

무엇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illegible]


높은 나라들보다도 양자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언어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명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문명까지의 역사를 놓고 주장하지만, 특히 일국양국간의 경계에 이르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양자국간의 경계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국간의 경계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국간의 경계는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상임이 어디든, 한국 정부만 일국제  
한 조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김영철 차  
단' 요구가 빚발이자 동원한 조치가 '모  
든 해외 일국자 2주간 의무격리'와 결산  
은 관료에서 국회를 발발한 정도로 외국  
인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부장  
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hany@hanyang.com

[illegible]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 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